

현안과제연구

Issue Report

2016. 03. 31

CONTENTS

〈요약〉

1. 개요
2. 이론적 고찰 및 사례조사
3. 독스빌리지 사업 내용 검토
4. 독스빌리지 유치의 가치

내포신도시 독스빌리지 유치에 따른 문화·경제적 가치 분석

책임 박철희, 참여 정지은, 임형빈

충남발전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연구위원, jacob10@cni.re.kr

본 연구의 목적은 「독스 빌리지」 사업추진과 조성에 따라 파급될 예상 잠재 가치와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음.

요약

- 문화예술은 주민들의 의식을 고양하고 창조적 능력을 키워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본질적인 역할을 넘어, 경제 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
 - 문화예술 및 문화와 관계된 사업효과는 이전과 다르게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음.
- 「독스 빌리지(Docs Village)」 사업은 ① 「독스 빌리지」 및 창작카페 조성 사업 ② Doc's Plan B Project로 구성됨.
- 검토 결과, 내포신도시에 독스빌리지 유치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 첫째 문화적 가치로서, ①내포신도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 ②다큐멘터리 영화의 중심지로서 내포신도시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 선점 효과, ③지역의 문화적 다양성 증진에 기여, ④충청남도 내에 문화산업 클러스터 기반 마련, ⑤다큐멘터리에 기반한 한국 영상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둘째, 경제적 가치로서, ①영상문화에 기반한 창조경제 성장에 기여, ②내포신도시 조기활성화에 기여, ③건설에 따른 충남지역에 생산유발효과 4,483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485백만원, 고용유발효과 43명이 기대됨.
 - 셋째, 사회적 가치로서, ①내포신도시 및 충청남도 내에 창조역량 강화, ②자생적·내발적 지역 문화발전 기틀 마련이 기대됨.
 - 넷째, 도시·환경적 가치로서, ①내포신도시의 문화경관 형성, ②자체로서 문화공간의 제공이 기대됨.

1. 배경

- 충청남도 경제비전2030, 100대 중점사업 S3-01 「전원형 전문가 마을(혁신빌리지) 조성」에 시범사업으로 「독스 빌리지」 조성 사업이 선정됨
 - 독스 빌리지(Docs Village)」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영화 감독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단지를 말함
- 2015년 9월 ‘충청남도’와 ‘사회적 협동조합 다큐마을’, ‘충청남도개발공사’,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의 협약서 체결 하에 내포신도시 블록형 단독주택 부지 내에 다큐멘터리 영화감독들이 집단으로 거주할 「독스 빌리지」가 조성될 예정임
- 이에, 「독스 빌리지」의 잠재가치 분석을 통해 충남도 및 충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독스 빌리지 조성의 유치 여부 및 향후 지원방안 모색의 자료로써 연구 필요성이 제기됨

2. 목적

- 본 과제의 목적은 「독스 빌리지」사업추진과 조성에 따라 파급될 예상 잠재가치와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음

3. 범위

■ 공간적 범위

- 위치 : 내포신도시 블록형 단독주택 부지(RB6 블록) 및 주변지역

■ 시간적 범위

● 기간 : 2016년 3월14일 ~ 3월 31일

■ 내용적 범위

-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이론적 고찰, 관련사례조사 및 검토
 - 둘째, 독스빌리지 조성 관련 사업내용 검토
 - 셋째, 독스빌리지 사업추진에 대한 가치를 검토함
 - 사업추진가치는 ①문화·사회적, ②경제적, ③도시(환경)적 측면에서 검토

4. 방법

- 내용별 연구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음

[표 1] 연구내용에 따른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 방법			비고
이론적 고찰	· 문화예술 및 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하였을 때 나타난 파급효과에 대한 고찰			
사례조사 및 검토	· 관련논문 및 보고서 상에 조사 분석된 유사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급효과에 대한 내용검토			
「독스빌리지」 조성 관련 사업내용	· 충청남도 문화정책과에서 제공한, ① Doc's Plan B Project ② 협약서 ③ 입주예정감독 제작 및 활동 내역 등에 대한 내용 검토			
사업추진가치	① 문화·사회적 가치(효과)	정성적 측면		
	② 경제적 가치(효과)	정성적 측면	정량적 측면	
	③ 도시(환경)적 가치(효과)	정성적 측면		

1. 이론적 고찰

- 21세기에 문화예술¹⁾과 대중은 이전의 시기보다 더욱 친밀하게 소통되고 있음
 - 문화예술을 지향하는 대중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예술을 접하며, 예술을 생활에 활용하며, 예술을 생활의 한 부분으로 받아 들임²⁾
- 문화예술은 사람들의 의식을 고양하고 창조적 능력을 키워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본질적인 역할을 넘어, 경제 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³⁾
- 따라서, 문화예술 및 문화⁴⁾와 관계된 사업효과도 이전과는 다르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최근 문화를 활용하여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를 보면 다음과 같으며⁵⁾, 이러한 효과가 가치로 제시될 수 있음
 - 환경적(물리적) 효과 : ①유희 건축물들과 오염된 토지의 재이용, ②환경적인 개선, ③복합 용도의 개발, ④공간에 대한 공공 용도의 증가
 - 경제적 효과 : ①내부투자 증가, ②체류증가와 방문객 소비 증대, ③일자리 창출, ④고용주 입지/증대, ⑤노동력의 다양화, ⑥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⑦소매 및 레저 개발의 추진, ⑧부동산 가치 증대, ⑨공공-민간의 자발적 협력 증대, ⑩지역의 문화영역에 협력적 참여

1)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함(법제2조)

2) 존 나이스비트, 박정훈 역, 2007, 미래로 가는 거대한 흐름 '메가트렌드', 일송북: 서울, p191.

3) 한국공간환경학회, 현대도시이론의 전환: 지역성장을 위한 장소마케팅, 서울: 한울, p258.

4) 문화기본법 상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함(법제3조)

5) 박철희, 2015,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사례 연구보고서, 충남발전연구원, pp22~23의 내용을 참조

- 사회적 효과 : ①장소/사람들의 이미지 또는 평판의 변화, ②사회적 결속의 증대, ③증대된 자신감과 영감, ④거주자들이 사는 장소에 대한 인식의 변화, ⑤사회적 자본의 증대, ⑥건강과 웰빙의 개선

[표 2] 문화와 재생을 연계하였을 때 기대되는 파급효과

환경적(물리적) 효과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휴 건축물들과 오염된 토지의 재이용 ▶ 환경적인 개선 ▶ 복합 용도의 개발 ▶ 공간에 대한 공공 용도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투자 ▶ 체류증가와 방문객 소비 ▶ 일자리 창출 ▶ 고용주 입지/증대 ▶ 노동력의 다양화 ▶ 새로운 비즈니스, 소매 및 레저 개발의 추진 ▶ 부동산 가치 증대 ▶ 공공-민간의 자발적 협력 증대 ▶ 지역의 문화영역에 협력적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사람들의 이미지 또는 평판의 변화 ▶ 사회적 결속의 증대 ▶ 증대된 자신감과 영감 ▶ 거주자들이 사는 장소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사회적 자본의 증대 ▶ 건강과 웰빙의 개선

자료: 박철희(2015),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사례 연구보고서, 충남발전연구원, p23.

- 또한 문화예술과 관련된 문화예술 특구가 지역사회에 미친 사회·문화적,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른 가치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 ①지역의 독특한 문화의 발굴과 복원, ②지역 애착심 제고, ③인구통계적 체계의 변화, ④지역예술품 및 토산품 보호, ⑤지역사회의 구조변화(표-3 참조)
 - 지역경제 파급효과 : ①지역소득의 증대, ②지역재정력 강화, ③지역 내 연관산업 발전, ④고용증대, ⑤지가 상승 등 자산가치 상승, 수익구조의 안정화(표-4 참조)

[표 3] 문화예술특구에 의한 지역사회·문화적 파급효과

사회·문화적 효과	효과 창출을 위한 대응방안
지역의 독특한 문화의 발굴과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옛 시대 민속문화의 발굴 및 복원 -지역문화의 재발견 및 보호관리 -지역문화의 관광화 -시대상을 재현하는 이벤트 활성화를 통해 독특한 거리문화 형성
지역 애착심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방안 마련 -문화예술특구 내 세부지역 이름짓기, 행사아이디어, 주제모집, 각종 대회 등에 지역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 -개발, 운영 등에 대한 지역민 의견수렴장치와 제도화 -환대 및 서비스 정신의 발휘를 통한 자긍심 유도
인구통계적 체계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경제의 활성화, 사회·문화여건의 향상, 생활여건의 향상, 문화생활 욕구의 충족 향상 방안 마련
지역예술품 및 토산품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특산품의 대량생산 방지 -관련기관으로부터의 정기적인 품질검사 실시 -질적 가치 저하, 산업화 방지를 통한 문화예술의 질 향상
지역사회의 구조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커뮤니케이션 변화 -범죄 및 각종 사고율의 변화 -정신, 문화향상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민 자긍심 제고 -생활공간과 관광지간의 격리 및 차단 -관광객에 대한 건전 관광문화 교육강화

자료: 세종경영연구원, 1999, 명동, 남대문시장, 북창지역의 관광특구화 방안

[표 4] 문화예술특구에 의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경제적 효과	효과 창출을 위한 대응방안
지역소득의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적 관점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지역재정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내 세수입 확보 -공익 또는 선도사업에 지자체의 참여 -현지금융 육성 및 강화
지역 내 연관산업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산업의 조화 발전도모 -지역산업과의 연계화
고용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의 개발 참여기회 확대 -특정산업에의 지역자본 참여 고정화 -자질 있는 관광 종사원의 고용확대
지가 상승 등 자산가치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거래 허가제 지역 지정
수익구조의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근 관광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공급계획 체계구성 -비수기 활성화 이벤트 개발 -개발규모 및 생업의 다양화 -연중 관광지화

자료: 세종경영연구원(1999), 명동, 남대문시장, 북창지역의 관광특구화 방안

2. 사례조사 검토

1) 조사 기준

- ◎ 국내외 영화관련 예술인 등이 모여 거주하며 창작 및 활동(레지던시)을 한 지역을 사례로 하여 문화·경제적인 효과를 조사하였음
 - 조사는 정책보고서, 학술지, 신문 기사 등의 비개입 데이터를 활용함
 - 해외 사례로 베이징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지구인 ‘중국 베이징 다산쯔 798 예술구’를 중심으로 살펴봄
 - 국내 사례로는 부산시에서 원도심 지역을 문화창작공간으로 변화시킨 ‘부산 토파또가’, 예술가들이 자생적으로 형성한 ‘서울 문래창작촌’, 정부의 문화클러스터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정된 ‘서울 대학로 문화지구’를 중심으로 조사함

2) 사례조사

(1) 중국 베이징 다산쯔 798 예술구

■ 개요

- 위치 : 중국 베이징
- 면적 : 1,161,900km²(약 30만평)
- 입주인원 : 200여개의 창작실, 400여개의 갤러리, 50여개의 패션숍 이외에도 스튜디오, 레스토랑, 카페, 출판사, 디자인회사, 광고회사, 798Space 등 300여 곳이 입주
- 특성 프로그램 : 798 아트페스티벌

■ 추진 배경

- 버려진 공장지대가 훌륭한 예술 명소로 탈바꿈한 798 예술구는, ‘베이징 치싱화디엔과기집단유한책임공사’⁶⁾가 공장의 소유주가 되면서, 2002년부터 공장의 유휴 공간을 저렴한 가격으로 예술가들에게 임대하면서

6) 베이징 치싱화디엔과기집단유한책임공사(北京七星華電科技集團有限責任公司)

구성되었음⁷⁾

- 현재 신진 작가의 육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가의 작업 공간으로 확대되면서, 영화, 음악연출, 작업실 등 다양한 문화관련 업종이 융합된 공간으로 변화됨

■ 효과

- 798 예술구가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인지되면서, 베이징이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하는데 예술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2003년 미국의 주간지 <타임지>에서 다산쯔 798예술구가 전 세계에서 문화 상징성이 뛰어난 22개 도시예술중심으로 선정되면서, 베이징시의 문화적인 가치가 상승함
- 또한 ‘베이징다산쯔국제예술제’도 4만 명의 관중이 모이는 중국의 대표적인 예술제로 성장하였음⁸⁾

[그림 1] 다산쯔 798예술구 전경모습



자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63101&cid=42864&categoryId=50859>

7) 장정재(2013), 「창조도시 선진사례 - 중국: 버려진 공장지대가 예술명소로 탈바꿈」, 『부산발전포럼』 제 141권, 부산발전연구원, p58.
8) 김명옥(2009), 「한중일 예술지구의 지역성과 공간특성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북경 798 예술특구, 나오시마 혼무라 마을, 삼청동 갤러리 거리를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제 10권4호, 한국기초조형학회, p22.

(2) 부산 또따또가

■ 개요

- 위치 : 부산 중구 중앙동
- 면적 : 반경 1km(소규모)
- 입주인원 :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 약 300여명
- 특성 프로그램 : 순수창작

■ 추진 배경

- 또따또가는 부산시가 원도심 지역을 문화 창작공간으로 변화시키려는 목적 하에 탄생하였음. 문화적인 활동의 대상도 순수 예술창작에서부터 영화, 패션까지 다양함
- ‘독립영화 갤러리 보기도문’은 카페이자 영화상영관이며, 영화 강좌가 열리고 있어 주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됨

■ 효과

- 또따또가는 예술가들에게 원도심의 공간적인 가치를 인정받으며, 예술인들을 유입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입주 예술가들과 지역주민이 주도한 ‘인쇄길 프로젝트’ 등의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가로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자부심이 고양되는 효과가 나타남⁹⁾

[그림 2] 또따또가의 전경¹⁾



9) 박세훈·김은란·박경현·정소양, 2011,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클러스터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결과보고서, p96.

(3) 서울 문래창작촌

■ 개요

- 위치 :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 면적 : 반경 500m(소규모)
- 입주인원 : 시각, 공연예술 중심의 예술가 200여 명 내외
(레지던스 작가 제외)
- 특성 프로그램 : 다목적활용(전시, 공연, 세미나 등)

■ 추진 배경

- 2000년대 문래예술촌은 공업지역 내 철재상가에 예술가들이 자생적으로 모여서 형성된 문화 창작의 공간임
- 현재 100여 곳의 작업공간에 시각, 공연, 시나리오 등의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 약 170여명이 활동 중임
- 그 중 ‘문래3가 문래독립영화상영회 추진위원회’에서 주체하는 ‘독립영화정기상영’은 다양한 독립영화들을 상영하고 있음¹⁰⁾

■ 효과

- 문래예술촌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하는 곳인 만큼 축제·소모임·해외 교류들이 진행되고 있음
- 이를 통해 다양한 예술가들의 교류 중심지가 되며 외부 예술가를 유입시키는 문화적인 효과를 가져 옴¹¹⁾

10) 위와 같음. p49.

11) 김홍주(2013), 「문래창작촌·광주 대인예술시장·부산 또따또가의 창조네트워크 비교 연구」, 『서울도시연구』 제 14권 3호, 서울연구원, p162.

(4) 서울 대학로 문화지구

■ 개요

- 위치 :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사거리~혜화동 로터리
- 면적 : 446,569km²
- 입주인원 : 문화예술 관련 기관, 단체 및 공연장(약 112개) 밀집지역
- 특성 프로그램 : 복합문화공간(공연, 영화, 전시 등)

■ 추진 배경

- 1990년 정부의 문화클러스터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대학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이 추진되었음. 정부에서 대학로 일대를 문화지구로 지정하면서, 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공연장을 육성하는 계기가 되었음
- 현재 영화제작 및 배급과 같은 대중예술과 관련된 업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대학로의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문화극장’이라는 새로운 스타일의 영화관을 선보임

■ 효과

- 대학로지역 공연장 클러스터 지역은 약 761억 원의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와 1,355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의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음

[그림 4] CGV 대학로 문화극장



- 대학로는 지역을 상업적으로 활성화시킨 사회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음¹²⁾

12) 임진욱(2009), 「대학로지역 공연장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문화예술경영학연구』 제 2권 1호,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p167.

3) 검토 종합 및 시사점

(1) 문화예술 창작의 활성화에 기여

- 문화예술분야의 창작활동 지원과 레지던시를 통해 예술가들 창작 활동이 활성화되었고, 이후 많은 예술가들이 유입되면서 지역의 문화적인 가치를 창출함
 -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만들어진 ‘서울 대학로 문화지구’와 예술가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유입된 ‘서울 문래창작촌’ 모두 문화 창작공간으로 활성화되고 있음
 - 특히, 모든 사례에서 시각, 공연, 영화 등 다양한 융합예술 교류의 장으로 확장되는 효과가 나타남

(2) 지역주민의 인식이 제고됨

-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이미지가 제고되는 계기가 되었고, 지역의 버려진 공간들이 예술가들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도시 재생의 일환이 되고 있음
 - ‘부산 또따또가’의 ‘독립영화 갤러리 보기드문’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강좌들을 개설하였고, ‘인쇄길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고양되는 결과가 나타남
 - ‘중국 베이징 다산쓰 798 예술구’는 버려진 공장지대가 훌륭한 예술 명소로 바뀌며,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탄생함

(3)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함

- 지역의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활용된 이후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 대학로 문화지구’는 공연장 클러스터로 활용되면서, 대학로 지역의 문화 활성화와 상업화 발전의 주요인이 되고 있으며, 약 761억 원의 직접적인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남

1. 사업추진 배경

- 다큐멘터리와 관련하여 친분이 있는 몇몇 감독들이 함께 모여 살고 싶다는 의견이 모아져 사업을 구체화 하게 됨
- 이들 감독 중 박봉남 감독이 안희정 도지사와 대화를 하던 중 도지사에게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도지사가 내포신도시에 입주하는 것을 제안하게 됨
- 이후 2015년 9월 「독스빌리지」의 성공적 조성과 충남도를 다큐멘터리 산업의 메카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함
- 현재(2016년 3월 18일) 충남개발공사와 입주감독 간에 토지 분양가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음

2. 사업협약서 내용

- 협약은 ‘충청남도’, ‘사회적협동조합 다큐마을’, ‘충청남도개발공사’, ‘방송콘텐츠진흥재단’ 등 4 주체¹³⁾가 ①「독스빌리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②충남의 영상문화와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협력하는 것에 대하여 체결함

1) 참여기관 공동 협력사항

- 공동 협력사항은 다음 네 가지임
 - (1) ‘독스빌리지’를 통해 내포신도시가 영상 예술가들의 창작과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함

13) 안희정지사, ‘독스빌리지 입주예정감독’ 대표인 진모영 감독, ‘충청남도개발공사’ 강익재 사장,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이사장 등 4주체

- (2)내포신도시를 다큐멘터리 제작, 교육, 공연의 중심지로 만들기
- (3)환황해 시대를 맞아 충청남도가 다큐멘터를 통해 아시아의 평화적 문화 교류에 기여
- (4)충청남도의 청년 창작자들을 육성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와 삶의 질을 향상

2) 참여기관 개별 협력 사항

참여기관	협력사항	비고
충청남도청	①'독스빌리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 ②다큐멘터리 등 영상 문화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사회적협동조합 "다큐마을"	①아름다운 '독스빌리지' 조성, 성공적 <u>협동조합</u> 운영,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 <u>협력과 봉사</u> ②충청남도와 내포신도시를 기반으로 <u>다큐멘터리 창작, 교육, 공연 활동</u> 에 매진 ③영상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역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경험과 전문성 공헌 ④환황해 시대를 맞아 <u>국제적 영상 문화 교류와 관련 산업의 세계화</u> 에 노력	
충청남도 개발공사	①'독스빌리지'의 안정적인 설계, 건축, 입주 및 후속 관리를 위한 정책 지원	
(재)방송콘텐츠 진흥재단	①'다큐마을'과 연계한 <u>거점 교육기관으로서 관련 사업 개발 및 운영</u>	

3. 사업내용

- 「독스 빌리지(Docs Village)」 사업은 크게 2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독스 빌리지」 및 창작카페 조성 사업이고, 두 번째는 「독스 빌리지」와 연계된 사업으로서 일명 Doc's Plan B Project(입주예정자 협의회¹⁴⁾에서 제안)임

14)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사회적협동조합 다큐마을'과 별도의 조직으로 되어 있으나 '입주예정자 협의회'의 구성원 상당수가 '사회적협동조합 다큐마을'에 포함되어 있음

1) 「독스 빌리지」 조성 사업

- 본 사업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① 「독스 빌리지」 조성과 ② 「독스 빌리지」 내 창작카페(문화창작소) 설립 운영으로 구성됨
 - 독스빌리지 조성과 관련 충남도의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은 없으나, 독스빌리지 조성 후에 다양한 연계사업을 구상·지원 계획임¹⁵⁾

사업명	사업개요	비고
독스빌리지 조성	①위치: 블록형 단독주택부지(RB6) ②면적: 7,275㎡ (세대당 100평 이내 예정) ③사업내용: 20세대 주거건축(입주예정감독 대상) ④사업비 : 52~65억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매입비 : 27억~30억(입주자 부담) - 설계비 및 건축 공사비 : 25억~35억(입주자 부담) 	-부지매입비는 유치incentive 적용 시의 1,350천원~1,500천원/평 예상가 임
다큐 창작카페 [문화창작소]	①위치: 블록형 단독주택부지(RB6) ②부지: 660㎡(200평), 건축면적 150㎡(45평) ③사업내용: 창작카페(문화창작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 세미나실/사랑방/북카페 - 2층: 상영관(30석 내외 소규모)/편집실/장비실 - 3층: 레지던시 주거 공간(6실 내외) ④사업비 : 8억	-충남도에서 조성한 후에 독스빌리지 입주감독(협 동조합'다큐마을')위탁(예 정)

[그림 5] 「독스빌리지」 토지이용계획 및 면적



자료 : 충남개발공사, 2016, 충남도청(내포)신도시 특별계획구역(RB-6BL) 토지이용계획 대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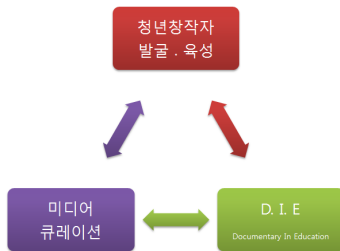
15) 충청남도 제공자료 참조

2) Doc's Plan B Project - 「독스 빌리지」와 연계된 사업

(1) 사업목표

- 충남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충청남도를 지속가능한 “한국 다큐멘터리의 약진을 위한 실제적 거점” 으로 육성

(2) 사업방향



- "Docs Campus"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청년 창작자 발굴 · 육성”
 - 충남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 공동체와 방송 전문가를 연계한 “미디어 큐레이션 서비스(media curation service)” 운영
 - <방송 + 영화>의 경계를 넘는, “D.I.E.¹⁶⁾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 연계 운영되는 선순환 사업 추진을 “청년 일자리 창출” 에 기여

(3) 사업내용

분야	세부 내용	추진계획(년도)				비고
		17	18	19	20	
1.청년 창작자 발굴·육성	1)청년감독양성	1기	2기	3기	4기	
	2)내 포 청년영화제	조직위 구성	1회	2회	3회	16년 추진위원회 구성 17년 조진위원회 구성
	3)청년창작 레지던시		1기/2기	3기/4기	5기/6기	‘다큐 창작카페’와 연계하여 추진
	4)방송분야 E-learning 플랫폼 및 인력뱅크 구축	Off-line 과정구축	E-learning 플랫폼구축	인력뱅크 구축	사업 안정화	
2.미디어 큐레이션 서비스	1)하이퍼 로컬(hyper-local) ¹⁷⁾ 푸드사업	마을TV 시범사업	마을TV 1기 사업	마을TV 2기 사업	마을TV 3기 사업	
	2)지역재생사업	지역재생 시범사업	1기 사업	2기 사업	3기 사업	
3.D.I.E.	1)폐교를 활용한 콘텐츠학교 운영	리모델링 사업	1기 콘텐츠 학교	2기 콘텐츠 학교	3기 콘텐츠 학교	
	2)다큐멘터리 프로슈머 양성 (아카이브 구축)	아카이브 구축 큐레이터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3)Dos Wellness Program (사적 다큐멘터리 제작)	교육 과정 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16) Documentary In Education의 약자

17) 지역 신문이 쓰러진 자리 ‘하이퍼로컬 미디어’ 뜬다, 이태훈,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 본 사업은 문화적·소프트적 측면이 강한 사업으로서 주체들의 협력과 참여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느냐, 입주가 감독들의 활동과 지역사회와 어떻게 교류하느냐 등에 따라 사업 효과와 가치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전제함
- 이론적 고찰과 사업내용 검토를 통해 내포신도시 내에 「독스 빌리지」 유치의 가치를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도시·환경적 측면에서 접근하였음
 - 사업에 대한 정성적인 가치는 ① 「독스 빌리지」 조성, ② 「독스 빌리지」 내 창작카페(문화창작소) 설립 운영, ③ Doc's Plan B Project 실행을 전제로 예상되는 가치 및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하였음
 - 정량적인 가치는 사업내용과 사업비가 어느정도 예상된 ① 「독스 빌리지」 조성, ② 「독스 빌리지」 내 창작카페(문화창작소) 설립에 한정하여 분석하였으며, 향후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경제 유발효과 분석은 세부 계획 수립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부분으로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음

1. 문화적 가치

1) 내포신도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

- 내포신도시 지역은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이 부족한 상태로서, 영상예술가들의 집단 거주와 다큐멘터리 관련 창작 활동은 신도시지역에 새로운 문화공급지로써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역사적 정체성은 시간의 농축에 의해 형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신도시 지역에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어려움

- 문화예술 부분에 인력 유치와 그 활동의 결과물들은 내포신도시 지역에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표 5] St. Ives와 Tate of the South-West

영국 남서부 지역에 작은 소도시인 성 아이브스(St. Ives)는 예술가와 수공예가들을 유치하고, 이들의 활동에 기반하여 성 아이브스에 Tate of the South-West를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적 중심으로 부상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낙후지역을 문화지역으로 탈바꿈



St. Ives의 Tate 전경

자료: <http://www.tate.org.uk/visit/tate-st-ives>

2) 다큐멘터리 영화의 중심지로서 내포신도시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 선점

- 영상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역 생태계 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다큐멘터리로 특화된 영화영상의 중심지로서 내포신도시에 문화도시 이미지를 형성에 기회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큐멘터리로의 차별화 요소는 타도시의 영상과 영화문화제 관련 문화사업과의 경쟁관계에 있어 내포신도시만의 독특한 문화 브랜드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문화예술에 있어 영화영상은 시각과 청각요소가 복합된 예술로서 문화산업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영화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충남지역에서는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음¹⁸⁾. 추진한다면 후발 주자로서 특화된 점

18) 현재 국내에서는 약 50여개의 영화제가 개최되고 있다. 크게 보면 국제영화제(부산, 전주, DMZ, EBS)와 독립영화제(서울독립영화제, 인디다큐페스티벌, 대전독립영화제)가 있고 지역에서 진행되는 영화제(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정동진독립영화제, 무주산골영화제)가 있다. 최근에는 울주산악영화제, 순천만영화제 등이 합류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영화제는 더욱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전국적으로 영화제가 없는 지역은 충남이 거의

근이 필요하며 충청남도 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요구됨

3)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¹⁹⁾ 증진에 기여

- 신도시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문화적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이런 측면에서 「독스빌리지」 유치와 창작카페(문화창작소) 설립·운영은 내포신도시와 충남지역의 문화적 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대도시 및 광역경제권과 같이 인구가 집중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산업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지역일수록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며, 이들 요소들이 경쟁력이 될 수 있지만, 신도시는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 지역·지방의 문화는 대부분 역사유산과 전통민속에 기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이런 측면에서 「독스빌리지」 유치와 창작카페(문화창작소) 설립·운영은 내포신도시에 새로운 문화의 공급과 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영화·영상을 소재로 하여, 새로이 유입되는 신도시 주민들 간에 교류와 소통을 촉진한다면, 문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과 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4) 충청남도 내에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기반 마련

- 소프트 파워 중심의 창조사회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역문화를 창조적으로 가치화하는 힘이 지역경쟁력 확보에 핵심적 요소 대두되고 있음
- 그러나, 충청남도에는 문화와 문화산업 클러스터²⁰⁾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예술가의 인적 네트워크와 지역사회 연계한 클러스터가 거의 없음

유일하다(자료: Doc's Plan B Project, p4 참조).

19) 문화적 다양성은 선택의 범위를 넓히고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육성해주는 풍요롭고 다양한 세계를 창조한다. 따라서 문화적 다양성은 공동체, 민족,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천이다(이태주(2006), 문명과 야만을 넘어서 문화 읽기, 프로네시스, p163).

20) 문화클러스터의 특징과 관련 개념과의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자료: 박세훈 외3명(2011),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클러스터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p30).

대림예술촌
창작자당 23개 입주 예술가 170여명

스페이스
현충사역 조성
현대미술작가스튜디오

금천예술공장
패션창작마을

홍대앞
현대미술, 미술음악
공연, 인디문화

대학로
문예예술진흥원 중심
소극장 밀집

내실악예술마을(인제)
개원한 20여개 거주, 작품활동
1997년 설립

예술창작스튜디오(제천)
도예실 2건, 전통무용실, 문화학교
2000년 전통문화 지원 조성

정선호조미술관(정선)
벽화 활동
전통문화, 도예실 등

(상주)예술촌
벽화 활동, 인형, 회화 중심

백담예술연촌(대구)
벽화 활동
지역미술작가 중심

문화초탈집전소(대구)
근대전집전시, 대하공간

가인예술촌(밀양)
벽화 활동, 인형도호물 특화

도파도파(부산)
현대미술 사무공간
밀집작가 300여명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부산)**
다대포 두기재공원

오픈 스페이스 배(부산)
작가 운영 창작, 전시공간
공모 스페이스도 진행

(김해)예술창작스튜디오
벽화 활동, 도자기실, 문예실 등

(진해)미술창작스튜디오
작가 6인, 전통무용 인형
시에서 일대조성

원재창작스튜디오(광주)
외래문화재단 조성, 문예
국내외 미술작가

지리 예술인 마을(제주)
인디조선, 전통예술가 유치
30여 작가 입주

자생적 센터
한강도호물 클러스터
정착도호물 클러스터

◎ 다큐멘터리 작가 들의 입주는 충남 영상문화의 창조와 혁신 클러스터 형성에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음

- 5) 다큐멘터리에 기반한 한국 영상문화 형성과 발전에 기반 마련

- 20 -

- 영상 관련 감독들과 관련 예술인들의 처우는 아직도 열악한 실정임
- 이러한 측면에서 내포신도시 내에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과 창작기반을 제공하는 것은 ①예술인 복지실현 차원²¹⁾에서도 부합하며, ②청년 지원자들을 육성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③창의적으로 영상 제작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됨
- 궁극적으로 충청남도 및 한국의 다큐멘터리에 기반한 영상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경제적 가치

1) 영상문화에 기반한 문화예술형 사회적 기업 사례로서 창조경제 성장에 기여

- 「독스빌리지」 조성과 입주는 ‘사회적협동조합 다큐마을’이 추진하고 있으며, 입주 후에는 창작카페(문화창작소)를 운영할 것으로 예측됨
- 창작카페(문화창작소)를 중심으로 한 창작, 교육, 공연활동은 문화적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문화예술형 사업적 기업으로서 충청남도 문화예술형 사회적 기업에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2) 내포신도시 조기 활성화에 기여

- 도시는 다양한 요소들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으로서, 생물체처럼 성장과 쇠퇴를 하며 변화함
-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청사의 이전을 계기로 조성된 도시로서 충남도청사를 중심으로 관련 공공기관(충남경찰청, 충남교육청 등) 입주와 주거단지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과 산업 유치에 필요한 실정임
- »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유립마을조성, 마당형 마트개발, 대학용지 복합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음²²⁾

21) 큰 틀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술인 복지 강화 정책에 부합됨(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업무계획 주목할 만한 10대 사업).

22) 충청남도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자료 참조

- 단독주거지 내에 일반주민들이 아닌 예술인 문화인 등의 집단적 입주는 신도시에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며, 조기 활성화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3) 건축 및 시설조성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 유발

- 「독스빌리지」 조성과 창작카페(문화창작소)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음
 - 「독스빌리지」 건설의 파급효과는 창작카페와 독스 빌리지 건설비인 3,424백만원에 대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함

- 「독스빌리지」 조성 관련 사업비 중 주거 건설비용은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25억~35억으로 추정되며, 분석 시에는 3000백만원으로 분석함
- 「독스빌리지」 내 창작카페(문화창작소) 건립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424백만원가 소요됨
 - 건축설계 및 건축비 : 324백만원(7,200천원*45평)
 - 조경 및 광장조성 : 100백만원
- 따라서, 「독스빌리지」 조성 건설비는 총 3,424백만원으로 산정하여 분석함

- 충남지역에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4,483백만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485백만원, 고용유발효과는 43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우리나라 전 지역에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7,704백만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492백만원, 고용유발효과는 62명인 것으로 분석됨

[표 5] 「독스빌리지」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구 분			합 계 (단위: 백만원, 명)
투 자 금 액			3,424
파급 효과	생산 유발효과	충남지역	4,483
		기타지역	3,221
		전국	7,704
	부가가치 유발효과	충남지역	1,485
		기타지역	1,007
		전국	2,492
	고용 유발효과	충남지역	43
		기타지역	19
		전국	62

주: 파급효과는 독스빌리지 조성 기간 중에 발생하는 건설비의 효과임

3. 사회적 가치

1) 내포신도시 및 충청남도 내에 창조역량 강화

- 「독스빌리지」와 함께 창작카페(문화창작소)가 개소되어 운영된다면, 2018년부터 연2회에 걸쳐 청년창작 레지던시가 이루어지며, 장비실과 편집실을 활용한 창작과 상영을 통해 영상문화에 대한 창조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17년 부터는 청년감독양성 프로그램이 창자카페를 통해 이루어져 창의적 인재양성이 기대됨

2) 자생적 및 내발적 문화발전 기틀 마련

- 내포신도시에는 문화적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며, 인근 홍성과 예산도 상황은 비슷한 실정임
- 자생적으로 형성되거나 만들어진 문화력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이 형성이 되지 않았을 때는 외부의 창조적 인력을 유치하여 발전시키는 것도 지역 혁신에 한 방법임
- 다만, 외부에서 유치된 창조인력이 다시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착근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독스빌리지」와 창작카페는 내발적 문화발전에 기틀을 마련하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됨

4. 도시·환경적 가치

1) 내포신도시의 문화경관 형성에 기여

- 「독스빌리지」와 인접한 홍예공원에 미술관, 도서관 등의 입지는 내포신도시 내에 상징적인 문화경관 형성에 기여
- 또한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건축환경과는 다른 측면에서 문화인들의 삶이 만들어내는 정서적인 문화적 경관이미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됨

2) 내포신도시 내에 문화적인 공공공간의 제공

- 영화감독들이 거주하는 「독스빌리지」는 감독들의 삶의 개인적인 공간이지만 창작카페(문화창작소)와 함께 일부를 개방하여 활용할 경우 그 자체가 문화공간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일반적인 주거지와는 다르게 개방형으로 주거를 조성하고 건물과 건물 사이를 공공공간으로서 활용한다면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됨
- » 「독스빌리지」와 주변지역에 대해 상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문화공간화를 추진